온라인 국제포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방안: 주요 선진국의 비정형노동자 보장 현황과 시사점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 중 하나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상병수당제도는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가 빈곤의 위험을 겪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가 취약계층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노동자들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격차를 완화시키는 제도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 온라인 국제포럼을 통해 오래 전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영어 동시통역 진형

		영어 동시통역 진행
시간		세부내용
17:00~17:10	개회사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Part 1		좌장: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17:10~17:30	발표 1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 Absence of sick leave and the status of other social protection systems in South Korea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7:30~18:00	발표 2	스웨덴의 상병수당 제도: Sickness benefits for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 Sweden
		Kenneth Nelson Professor of Sociology,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FI), Stockholm University
18:00~18:30	발표 3	벨기에의 상병수당 제도: Sickness benefits for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 Belgium
		Jozef Pacolet Emeritus professor, HIVA, KU Leuven
18:30~19:00	발표 4	독일의 상병수당 제도: Sickness benefits for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 Germany
		Gerhard Baecke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Uni Duisburg-Essen
19:00~19:10		휴식
Part 2		
19:10~20:00	종합토론	Kenneth Nelson Professor of Sociology,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FI), Stockholm University
		Jozef Pacolet Emeritus professor, HIVA, KU Leuven
		Gerhard Baecke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Uni Duisburg-Essen
		Slavina Spasova Researcher, European Social Observatory(OSE),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